불교와 설풍속

자비광명기원 세배하는 날

스님 마을돌며 권선·길운 염불

불자들 사찰머물며 삼보공양

설날은 새해의 첫날로 묵은해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날이다.

설날에는 가족의 어른들과 함께 온가족이 모여 조상을 봉양하고 뿌리를 재인식하는 차례를 지낸다.

설날 아침에 드리는 차례 의식은 옛날부터 지켜온 조상공경의 미풍양속으로 불교의 '다례'에서 유래된 것이다(삼국유사). 원래 차를 올리던 것을 조선시대 이후 유교의 영향으로 술과 고기를 올리게 변모되었으나 그 명칭만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차례'로 전해져 왔다.

설날이 밝아오면 사찰에서는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전 대중이 함께 부처님을 비롯한 삼보와 호법신중에게 세배를 올려 새해가 왔음을 고하고 뒤이어 큰스님들께 차례로 세배 드리는 세알의식을 치렀다. 세알을 함으로써 삼보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새해에도 함께 할것을 기원했다.

설날에 행해졌던 의례 가운데 산사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와 법고를 치며 집집마다 돌면서 권선 염불을 행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속인들은 스님들에게 떡과 돈을 보시하고 승병이라고 부른 스님들의 떡을 서로 바꾸어 먹으면 일년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삼보를 봉양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위해 섣달 그믐부터 정월 초하루까지는 마을의 불자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스님들께 돌아가며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풍습도 있었다.

이같은 풍습은 버어마, 스리랑카 같은 국가에서는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다.

설날에 행했던 불교와 관련된 세시풍속에는 불교의 참회방법을 수록한 〈점찰경〉에서 유래한 6개 또는 3개로 된 주사위모양의 10면 목륜상을 던져, 나타나는 표시에 따라 참회하고 수행할것을 다짐하는 것이 있었다.

이와함께 서산대사가 고안했다고 전해지는 성불도 놀이가 있다. 윷놀이판과 아주 비슷한 이 놀이는 육각형의 나무세개에 '나무아미타불' 여섯자를 각 모에 써놓고 이를 던져 위치를 찾는 방법이다. 육각 나무윷을 던지기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던진후 육면에 적혀있는 숫자대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초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스님들이 마을굿의 제관으로 참여해 마을과 절에 길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기도 했으며, 절입구의 서낭이나 장승앞에서 정초에 스님들이 성황제를 지내 질병을 막고 절의 융성과 화합을 기원했다고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전통세시풍속들은 오늘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민족전통문화 전승에 불교계가 더욱 노력해야 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

설날아침에 듣는 동화

그림 : 이준석

"삼촌, 부처님도 세뱃돈 주실까요"

훈이는 절을 향해 나서며…

오늘은 바로 우리들의 설날,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훈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빔을 입고 어른들을 따라 차례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작은집 식구들과 막내고모, 대구에서 근무하는 삼촌 등 식구들이 모두 훈이네 집에 모여 모처럼 온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자, 한 살씩 더 먹었으니까 어서 성묘 다녀오자꾸나"

차례를 지낸 뒤 떡국을 먹고 나자 훈이 할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입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설날 성묘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조상님들께 드리는 매우 뜻깊은 풍습입니다.

성묘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새해 인사라면 세배는 살아계신 어른들께 드리는 새해맞이 큰절이라 할 수 있지요. 세배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이루시길 기원합니다하는 뜻으로 드리는데, 어른들은 이때 맛있는 음식이나 세뱃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하시지요.

"훈이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새해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덕담이라고 합니다. 덕담은 새해를 맞아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인사법 입니다.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섣달 그믐날 밤에 골목을 다니며 "복조리 사세요"하고 복조리를 파는 풍습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리를 사서 한데 묶어 방이나 부엌에 매달아 두면 일년 내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복조리라고 부릅니다.

설에는 이밖에도 널뛰기와 윷놀이, 훈이가 좋아하는 연날리기 등 우리 겨레의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가 많이 전해지고 있지요.

"훈이야, 오늘은 청룡사 부처님이 심심하시겠다"

세배를 드리고 나자 갑자기 삼촌이 일어나며 훈이네 뒷산에 있는 절에 가자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삼촌, 부처님도 세뱃돈 주실까요?"

"하하하! 부처님은 세뱃돈보다 더 좋은 걸 주실거야."

청룡사 가는 길에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가 미류나무 가지에 앉아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정범〈불지사 출판기획부장〉

만화

法句經

마음의 장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이 향 원

이리후 건강칼럼 〈13〉

술

약인가 독인가

약주는 흥 돋우지만 과음은 금물

한해가 저무는 세모나 새해를 맞는 신년초가 되면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진다. 핑계없는 술이 있을까만은 연말연시를 맞으면 핑계를 더 뚜렷이 대면서 술을 마실수가 있다. 한 지도층인사가 피로연의 술에 취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무고한 시민을 죽게하고 여러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얼마전에 일어났다. 술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이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최근 주류업자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말이라면서 가벼운 술은 오히려 몸에 좋다며 선전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연이어 나온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로 그 선전을 일축했는데 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인간으로부터는 사리분별을 기대하지 말라는 예찬론이 있는가 하면, 술은 범죄의 아비요 더러운 것들의 어미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물론 술을 경직되게 한가지 설명만으로 이원론적인 해답을 얻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세의 철학자 럿셀은 이렇게 말했다. "음주는 일시적인 자살이다. 음주가 갖다주는 행복은 단순히 소극적인 것, 불행의 일시적인 중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법화경에 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도 했다. 영국의 속담에도 술은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술은 배신자라고 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친구가 되지만 나중에는 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신은 근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도 했다.

의학적으로 술로 인한 정신과적인 질병에는 알코올남용, 알코올 의존, 알코올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로 인한 환각증, 섬망, 건망성장애, 기타 알코올로 인한 치매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이름이 붙게된다.

그 원인은 한결같이 알코올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유래된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술소비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피해도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건강을 축하합시다" 흔히 건배라는 말로 술잔을 서로 마주치면서 흥을 돋구지만 기실 건강을 축하할 일이 아니고 스스로 만성적인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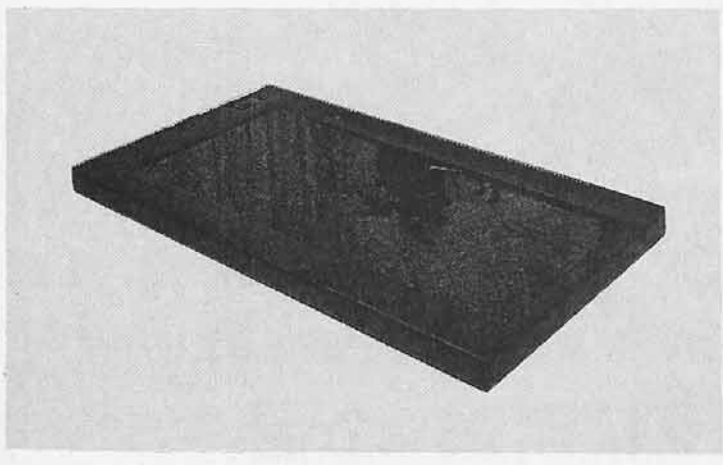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검사 전문기관인 입안구원에서 보증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EMI

돌 자연석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가 10개월 할부 단행!!
— 기간 1995. 1. 26까지 —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백화점 — 소비자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방지 돌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찜질기입니다.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상담실 운영